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 2월 성시간 안내

- 일시: 2월 6일 금요일 미사 후
- \* 많은 교우들이 성시간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은총을 받도록 합시다.

### ◆ 구역별 가정 면담

- 공동체의 사무행정 및 재정 확립과 신자들의 신앙생활 지도를 위해 신부님 면담을 합니다.
- 일시: 2월 1일부터 매주 주일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김효임 구역, 김제준 구역, 정하상 구역, 황석두 구역, 이호영 구역
- 지참물: 교적, 교무금 약정서, 신앙현황서
- \* 지참물은 구역장을 통해서 배부됩니다. 신부님 면담 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학생면담

- 일시: 2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 평일 미사 및 각 단체 모임 후
- 장소: Parish Center 내 신부님 집무실
- 면담순서: 상지의 옥좌, 성가대, 청년성서모임
- \* 지참물은 구역별 면담과 같습니다.

### ◆ 성모회 모임

- 일시: 2월 8일 주일 미사후

### ◆ 꾸리아 모임

- 일시: 오늘 주일 미사후 2시 45분
- 장소: Parish Center Meeting Room

### ◆ 김제준 구역 모임

- 일시: 2월 7일 저녁 7시
- 장소: 구역장 자택

### ◆ 김효임 구역 안내

- \* 학생 부부 중 아직 구역에 편성되지 않으신 분은 김효임 구역장, 안유신 레오 형제님에게 연락바랍니다. ([ahnysleo@gmail.com](mailto:ahnysleo@gmail.com), 614-203-5046)

### ◆ 친교 준비 봉사자

- 2월 1일: 신현태
- 2월 8일: 김미영

### ◆ 2월 친교 후 정리 봉사: 황석두 구역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홍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시-1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4주일 February 1, 2009



<약령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12세기, 채색삽화, 상트레네비레베 도서관, 파리, 프랑스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366.00
교 무 금	\$270.00

- 교 무 금: 김영숙 김명호 김한식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신명기 18,15-20

“나는 예언자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화답송



제 2 독서 코린토 1서 7,32-35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도다.
-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21-28

“예수님께서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3,835단 26명
이호영	단 명	16,116단 99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단 명	2/22/04 - 1/25/09 (258주)

☞ 총누계: 208,661단 12,726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2월1일	2월8일
해설자	고상식	안유신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상지의 옥좌	십자가의 모후

### 오늘의 성가

- ♫ 입당: 402      ♫ 봉헌: 212
- ♫ 성체: 151 158      ♫ 파견: 62

## 생명의 말씀

###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예수님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지난해 해외 언론에 로마 교황청이 악마를 내쫓는 사제 수백 명을 구마사(驅魔師)로 양성한다는 계획이 보도됐습니다. 외신은 교황청이 전 세계적으로 악마주의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현상을 경계하며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악마의 존재를 미신이나 과거의 유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악마의 가장 은밀한 간계는 우리로 하여금 악마의 존재가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악마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나쁜 길에 빠졌거나 빠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것은 인류역사에 죄와 불행의 씨를 뿌리는 두려운 유혹자이며 원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과 악마가 들린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악마를 몰아내는 전통적인 예식은 구마자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강복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때 악마 들린 사람이 고통을 지르거나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회역사에서 보면 성인성녀들도 악마의 공격과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요한 비안네 신부님은 악마의 시달림을 많이 받은 성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이 악마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사목적으로 잘 돌보아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카파르나움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소란을 피웁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놀랄 일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악마에게 명령하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마는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악마는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고 타락으로 이끌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기적은 악으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마를 쫓아내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우리가 악마를 내쫓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세례성사는 우리를 악마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악마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악마를 내쫓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약한 탓이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또한 기도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굳은 믿음(마태 17,20)과 기도(마르 9,29)로써 악마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성모님을 통해 드리는 묵주기도는 악마를 내쫓는 특효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무조건 악마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악마가 저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내쫓아주세요.”

“예수님! 저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악마가 저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내쫓아주세요.”